

# 日本の 綠資源 確保와 林産業・地域林業의 活性化 方案<sup>1</sup>

朴 明 圭<sup>2</sup>

## Acquirement of Green Resources and Activation of Forst Products and Regional Forestry in Japan<sup>1</sup>

Myong Kyu Park<sup>2</sup>

### 1. 緒 言

일본은 國土의 66%가 林野로 점유되고 있으며 面積은 2,500 만 ha에 이르고 있다. 그 중 40%에 該當하는 1,000 만 ha가 人工林으로 造成되고 있어 그들은 삼림관리와 임업경영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日本이 보유하게 된 풍성한 綠資源의 확보 대책은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 농자원과 삼림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그 율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여하히 그에 대처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林業 및 林産業의 活性化 현상에 부응해서 地域 林業의 活性化 方案으로 提示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책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본다.

日本은 우리와 地政學의 으로 이웃에 隣接되어 있으며 그들의 林業・林産業・山村의 構造의 인 條件은 우리와 類似點이 많다. 따라서 그들의 森林分野에 관련된 語般 事情의 理解는 침체화된 우리의 林業・林産業・山村의 活性化와 그에 대한 立論을 提起하는데 있어 귀중한 資料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 2. 綠資源 確保의 展開

二次大戰 종료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綠資源 確保를 위한 몇 단계의 전개모습을 區分해 볼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時代의 要請에 따른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 2.1. 國土綠化 推進運動

1960年代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은 마침내 에너지 資源의 主류를 石油資源으로 탈바꿈 했으며 土木建築 資材의 主류를 鐵鋼으로 轉換케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大戰前後를 통해서 木材는 에너지 資源으로서 또한 土木建築資材로서 가장 重要視된 物資였으며 그 活用도가 많았던 資源이다. 말하자면 日本經濟社會에 있어서 木材는 지난날 石油임과 동시에 鐵의 役割을 다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大戰後 1950年代의 復興期를 통해 日本의 森林은 再生産力을 초과하는 亂伐이 進行되었으며 山村의 여러 地域에는 황폐임지가 눈에 띄이게 되고 마침내 終戰 직후의 크나큰 災害發生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森林의 황폐현상을 하루속히 回復시켜 나가기 위해서 舉國의 國土綠化運動의 展開가 시도되었다.

천황이 임석한 가운데 매년 地方에서 거행되는 두가지 行事가 있는데 그 하나는 植樹祭이고 다른 하나는 國民體育大會이다. 식수제와 함께 綠週間, 綠少年團이 창설되는 등 國토녹화를 國民的 運動으로서 推進해 나가기 위한 각종 制度가 정비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같은 行事는 國土綠化의 中心的 役割을 擔當해 오고 있다.

이처럼 舉國的인 國土綠化運動의 전개와 그에 후속되는 積極적인 擴大造林의 推進에 의해서 2,500萬ha의 森林 中 1,000萬ha가 人工林으로 造成되었으며, 山村은 아름답고 풍성한 綠資源에 에워싸이게 되었다.

<sup>1</sup> 接受 4月 16日 Received April 16, 1984.

<sup>2</sup>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weon 170, Korea.

## 2. 2. 自然保護運動의 胎動

資源에 대한 國民의 관심이 두번째로 高潮된 시기는 1971年 環境廳發足과 이를 계기로 해서 成行한 自然保護運動이다. 高度經濟成長에 수반된 工業化, 都市化의 진전은 마침내 農山村이나 地方으로부터 인구의 유출과 이주를 加速化시켰으며 大型過密化된 도시지역 주민의 주위에서는 녹자원이나 자연환경이 점차 소실되어 갔다. 그와 함께 활발한 産業化 活動, 도시인구의 집중 과밀화에 의한 公害問題, 住宅·地價問題, 交通問題 등에 대한 대책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같은 상황하에 都市地域의 亂開發에 대한 비판, 山村地域에 있어서의 森林施業과 體育管理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높아져 갔다. 그러므로 공해문제를 위한 각종 법률제정,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체계의 정비,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역의 토지매입제도 등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綠化守護를 제창하는 일부 自然保護論者들은 삼림에 인위를 가하지 않는 행위, 소위 자연방치 그대로가 자연보호운동의 첩경으로 여기는 경향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綠地를 가꾸고 林業·林産業을 수호하는 일은 녹자원을 영원히 건전하게 유지 확충해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 2. 3. 새로운 綠資源 確保運動

### 1) 都市地域의 綠資源 減少

高度經濟成長 時代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都市의 擴大, 過密化와 그에 수반해서 콘크리트와 철에 에워싸인 도시주민들은 풍성한 綠地와 自然을 회구하는 마음 가짐이 한층 더 강해가고 있다.

日本은 좁은 국토면적에 고밀도의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나라로서 국토의 2%에 지나지 않는 도시지역에 전인구의 60%가 집중하고 있다. 이들 都市住民에게 녹지와 자연에 대한 동경이 강해지고 녹지를 회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은 당연하다.

### 2) 地球上의 綠資源 減少

1962年 木材輸入이 自由化된 이후 목재도입은 고도경제 성장기의 호조와 더불어 매년 증가를 거듭하였고 현금에는 목재공급의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結果 世界 原木 무역량의 40%를 일본이 수입하게 된, 거대한 外材依存國이 되고 있다. 그와 반면에 지구상의 녹자원 동향을 보면 매년 2,000만ha의 삼림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

는 놀라운 사실이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같은 삼림자원 감소 현상은 바야흐로 녹지문제에 관한 불안과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 3) 森林의 公益의 機能의 高潮

集中豪雨에 의한 재해 발생이나 都市地域에 대한 水資源供給 問題 등과 관련해서 삼림은 목재공급과 같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 공익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시적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량의 수자원을 일시에 하류로 유출시키는 일없이 상류의 삼림에서 그것을 유보케 하고, 년간 단단없이 상류에 수원을 공급 가능케 하는 일은 森林의 水源涵養 기능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한 適正管理된 삼림에서는 입지의 土地緊縛力이 유지되고 土砂崩壞 등 災害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災害防止機能, 國土保全機能 등이 있다.

그리고 都市住民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풍성한 삼림은 최근 森林浴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健全한 休養과 健康回復의 場所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靑少年의 自然教育場으로도 그 機能이 高高되어 가고 있다.

## 3. 地域林業의 活性化 對策

### 3. 1. 綠資源의 擔當主體

삼림과 녹지문제에 대한 관심은 時代의 흐름과 함께 변동되고 있다. 지난날 국토녹화 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에서는 森林·綠地 등 物財를 主로 取扱對象으로 삼은데 反해서 오늘의 綠地론은 森林·綠化의 담당주체인 산촌, 임업자, 임업종사자, 임산업자 등 사람이나 임업담당 주체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아 볼 수가 있다.

1960年代 주창되었던 자연보호론은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이 自然保護의 첩경이라 여겼으므로 임업의 담당 주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아지나 終戰後부터 시작되었던 국토녹화 운동에 있어서도 사람의 관점을 그렇게 신중히 취급치 않아도 무방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 이전은 경제자원으로서의 목재는 항상 공급부족 상태였다. 그러므로 목재공급자 즉 산촌이나 임업사이드에 있어서는 木材需要나 價格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었다. 도리어 木材는 物價安定 대책상 언제나 문제 품목으

로 취급되어 수입의 촉진, 국산재의 벌채 증진 등 조치에 의해서 가격의 등귀를 억제하는 일이 정책과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林業・林産業의 재산성, 林業擔當主體의 소득확보는 오늘날 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 임업・임산업・산촌을 에워싼 경제사정은 크게 변모했다. 경제사정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이행되었고 木材需要는 크게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목재수요의 대종을 이루는 建築住宅 착공수효는 1973년 190萬戶였던 것이 1982년에는 115萬戶로 40%나 減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지출의 억제에 수반되어 공공사업은 침체되고 석유화학제품과 금속제품에 의한 代替材의 출현은 목재수요의 절대량을 크게 감축시키는 결과를 파생케 했다. 그와 같은 변화는 목재가격의 하락, 임업경영의 재산성 악화 현상을 표면화 시켰으며 마침내 삼림의 건전한 육성 관리 정비에 不安을 초래하고 말았다.

### 3.2. 森林 適正管理의 重要性

大戦後 조성된 人工林 1,000萬ha 중 제벌, 간벌, 가지치기 등 보육관리를 필요로 하는 30년생 以下の 삼림면적은 90%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삼림의 적정 보육 관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목재가격 하락의 영향에 의해서 부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삼림관리의 조방화를 면치 못하는 경향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그대로 계속 방치되면 10~20년 후에 본격적인 주벌기를 맞이할 국산재 자원은 질적, 양적으로 빈약해 질 염려가 많다. 이러한 당면 문제는 산촌의 소득 기회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삼림의 조성 보육관리에 대한 산촌 주민의 의욕을 감퇴케 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삼림의 황폐와 산촌의 쇠퇴현상이 초래된 우려가 많다.

또한 삼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삼림의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관리가 잘 이루어진 삼림의 수목은 가지나 근계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왕성하며 토지의 보전력이 강해진다. 토양의 공극율도 높게 된다. 따라서 풍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수자원의 보유, 함양능력도 높아진다.

學術적으로 귀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동식물의 생육환경이나 우아한 풍지경관을 가진 삼림은 인위를 가하지 않고 보전해야 함은 당연한 처사라 하겠지만 국토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삼림 중에서 그러한 지역은

극히 한정되고 있다. 그의 대부분의 삼림은 人間이 적정한 보육관리를 실시해 나감으로서 처음으로 그들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도시 주민의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보건 휴양,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될 삼림에 있어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必要 最少限의 시설인 캠프장,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삼림의 적정 보육관리는 녹자원의 유지 배양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삼림보육관리의 담당주체로서 기대되는 것은 누구인가. 도시에서 就勞機會를 가지고 있는 도시 주민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산촌에서 도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독일과 같이 삼림지역과 도시가 병존해 있는 나라와는 달리 도시와 산촌이 격리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에 있어서도 距離的, 時間的으로 그리고 心理的으로도 도시에 거주하면서 삼림의 보육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삼림의 보육관리는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대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 3.3. 山村住民의 實態

산촌의 인구동향을 보면 목재가격이 비교적 好調로 유지되었던 高度經濟成長期에 있어서도 인구의 감소를 면치 못했다. 도시지역의 안전되고 유리한 취로기회는 마침내 산촌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유출케 하는 계기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그같은 현상은 低成長經濟期에 접어든 금일에 있어서도 감소율은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산촌인구는 1965년 대비 현재 80% 이하로 감소되고 있다. 더우기 산촌주민 중에서 임업취업자의 동향을 보면 50세 이상의 취로자가 1965년에는 30% 이하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50%에 가까운 실정이다.

오늘날 산촌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여하히 인구유출과 과소화를 저지시키며 젊은 노동력을 산촌지역에 정착토록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산촌지역의 안전과 발전없이는 삼림의 건전한 육성관리와 녹자원의 유지 배양을 달성할 수 없으며 목재자원의 안전적 공급은 물론, 국토보전, 재해방지, 수자원 함양,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의 제공 등 녹자원에 부과된 과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 3.4. 地域林業의 活性化

山村住民의 定着을 시도하기 위한 主要課題는 먼저 山村 地域에 있어서 就勞機會의 開發과 아울러 所得의 安定을 도모하여 都市地域에 비해 뒤쳐져 있는 生活環境을 改善하는데 있다. 이같은 課題를 이룩하기 위한 事業을 오늘날 地域林業의 活性化 對策이라 일컫고 있다.

林家經濟調查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林家의 소득을 5~20ha 規模의 森林所有者를 기준으로 보았을 적에 1971년에는 戶當所得 144만엔 중 林家所得은 14만엔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1981년에는 호당 총소득 443만엔 중 林業所得은 19만엔으로서 4.2%로 줄고 있다. 또한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호당 383만엔으로 도시근교의 호당 농가소득의 69%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林家所得이 都市住民의 所得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提示함과 동시에 근간 농가의 소득 중에서도 임업소득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林業所得 비율의 저하는 日本의 森林이 대부분 아직 主伐期에 이르지 못하고 保育間伐期에 처해 있어 한편으로는 목재수요의 저하 등 林業을 壓박한 경제환경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林業의 경영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농업과의 겸업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地域林業의 活性化 對策은 산촌의 취업기회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임업노동 종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조림, 보육, 간벌, 벌채 등 임업노동은 계절이나 休후 등 자연적 제약 하에 間斷性을 면치 못하는 特性이 있다. 그러므로 산촌에 있어서 임업노동자의 연간 취로일수는 日本의 삼림조합노동반을 예로 들면 평균 150일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산촌주민의 취로와 소득의 안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임업노동에 취로 불가능한 시기에는 단 일터를 개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日本의 삼림소유 실태와 임업노동의 특질로 보아 임업지역의 活性化를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업, 축산, 임산가공, 특용임산물의 생산, 삼림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정비 등을 지역설정에 부응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촌주민에게 또한가지 큰문제는 생활환경 정비가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산촌의 생활환경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1978년 기준 지방도(市, 町, 村

道) 포장율이 全國平均 37%인데 반해서 山村은 28% 上水道 보급율은 全國平均 88%인데 山村은 64%, ick지학교 비율이 全國平均 24%인데 山村은 58% 人口 1萬名當 醫師率은 전국평균 11.8명인데 대해서 山村은 7.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山村은 생활환경이 뒤쳐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외에도 教育, 文化施設, 交通, 通信施設 등 각종 社會資本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山村生活를 매력 없는 곳으로 간주하게 되고 동시에 과소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산촌주민을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가 지역임업 활성화의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4. 地域林業 活性化의 各種 提言

生活環境의 未整備, 就勞機會의 不安定 등에 起因한 山村의 過疎化 現象은 마침내 林業과 林産業의 正常活動을 阻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으며 山村管理의 粗放化를 면치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그러므로 山村에 대한 人口問題는 斯界의 異常한 關心을 모으고 있으며 綠資源確保에 關한 여러가지 論議중에서 특히 強하게 크로즈업되고 있다. 最近 學論되고 있는 地域林業 活性化에 關한 各界의 代表的인 答申과 提言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4.1. 農政審議會의 報告

農政審議會는 林業, 林政의 審議를 目的으로 하는 機關은 아니지만 最近 綠資源에 대한 關心이 높아감에 따라 綠資源의 維持培養을 위한 基本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1982년 8월 農政審議會에서 報告된 80年代 農政의 基本方向 推進에 의하면 適切한 農林業 活動을 構築해 나갈 基礎要件으로서, 먼저 農林業에 意欲을 가지고 참여할 擔當主體를 育成함과 동시에 活力있는 地域社會의 形成을 試圖한다. 그럴 경우 특히 過疎化가 현저한 山村의 振興을 配慮해야 한다고 提言하고 있는 바, 이는 山村의 活性化와 振興의 必要性을 強調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2. 經濟調查協會의 報告

經濟調查協會는 1982년 9월 山村施策에 대해서 20世紀의 展望이라는 報告書를 提出했다. 그 內容中에는 山村振興의 重要性을 解明하고 그에 必要한

方策으로서 山村에 豊富하게 賦存되어 있는 山村資源을 高度로 活用하는 일 없이는 山村의 振興도 있을 수 없으며, 이같은 側面에서 林業·林産業이 履行해야 할 役割은 크다.

그러므로 計劃的, 集團的인 山林施策을 推進해 나가면서 林業勞動力의 組織化를 통한 安定的인 就業場을 確保해 가는 일, 또한 林道の 整備를 足進해 나갈 것으로서 伐採, 造林事業의 擴大를 試圖하는 일 그리고 地域의 特性을 살리는 森林레크리에이션 事業의 開發, 農業과의 적절한 配合에 의해서 安定된 就業機會를 創出해 내는데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提言하고 있다.

### 4.3. 林政審議會의 報告

1983年 1月 林政審議會 施策部에서는 森林, 林業과 林政의 方向이란 報告書를 提出했다. 該 報告書에서는 林業經營의 安定化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事項을 指摘하고 있는 바, 그 內容을 보면 林家의 經營은 多樣하게 分類되지만 收入과 就業機會의 增大를 위해서는 聚落單位의 活動을 고려해서 林業, 特用林産 등의 振興을 期함과 동시에 林業, 農業 其他의 地域産業을 一體로 하는 地域單位의 振興에 參與할 것을 要望하고 있다. 또한 林家와 林業從事者의 大部分은 山村地域에 居住하고 있으나 이들 地域은 오늘날 더욱 過疎化, 老齡化가 進行되고 있으며 동시에 他地域에 비해서 生活環境의 整備가 지연되고 있다.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을 目標로 定住構想을 推進해 가는 過程에서 이들 山村地域의 生活環境 整備에 대해 林政의 積極적인 関여와 함께 地域林業의 振興을 통해 山村地域의 發展을 試圖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 4.4. 林業白書

1983年 4월에 公表된 林業白書에 의하면 山林의 大部分은 아직 未成熟 狀態의 人工林과 新炭林 등으로, 현재 거의 利用되지 않는 山林資源이 賦存되고 있어 林業을 振興하는데 더욱 基盤整備가 必要한 段階에 놓여 있다. 아울러 山村은 農業 등의 産業基盤 및 生活環境整備가 지연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앞으로 한층 더 山村地域의 安住條件을 整備해 나갈 必要性이 要된다.

그리고 山間地에 適合한 農作物이나 豊富한 資源의 活用에 연계되는 特用林産物의 生産에 의해서 農林家의 定着化와 就勞場의 確保를 試圖하고 山村地域의

振興을 期해 나가면서 森林의 適正한 管理를 推進해 가는 일이 극히 重要하다.

이처럼 林業白書는 農業과 林業의 複合經營에 의한 山村의 定住條件의 整備를 提言하고 있다.

### 4.5. 經濟同友會의 報告

1983年 6月 經濟同友會가 發表한 日本農業의 再發見에 의하면 木材를 建築用材만이 아니고 에너지源, 肥料, 飼料用 등 多樣한 用途로 利用해 나갈 方策을 提言하고 있다.

즉 日本의 所要에너지의 30%를 堪當할 수 있는 것으로 試算되고 있는 森林의 生産力 一部를 農村의 새로운 에너지材로서 供給하는 일, 林野放牧에 의한 畜産地를 增大시키는 일, 木材의 有用成分에 關連되는 廢品을 開發해서 地域의 振興을 試圖하는 일 등 森林의 總合利用의 길을 넓히고 이를 基本으로 育苗, 植木, 間伐, 保全에 關한 시스템을 構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課題를 遂行하는데 있어서는 成熟木材만이 아니고 間伐材, 가지, 樹皮, 削片, 廢材, 木粉 등 木質系資源을 充分로 活用하는 計劃과 필요한 山林機器의 開發, 集荷루트의 確立 등 對策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시스템을 構築하는데 있어서는 農業, 畜産과 연계된 經營의 改善強化가 要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 4.6. '80年代 經濟社會의 展望과 指針

1983年 8月 閣議決定된 '80年代 經濟社會의 展望과 指針에 의하면 林業生産 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地域狀況에 따라 市, 町, 村의 協力下에 森林組合 등이 中心이 되어 關係者와 連帶를 強化함과 동시에 森林의 造成管理로부터 木材의 生産流通, 加工가치를 有機的으로 關連시키고 地域林業의 振興을 試圖한다.

또한 林業, 林産業을 中心으로 農畜産業 등 地域의 資源을 살리는 産業의 振興과 生活環境의 整備에 의해서 山村의 振興에 노력해야 한다. 農山漁村에 있어서는 國土, 自然環境保全機能의 維持增進을 配慮해 가면서 經濟活性化와 就業機會의 充實, 生活環境의 改善 등 綜合的인 居住環境整備를 圖謀하고, 安定되고 活力있는 地域社會를 形成토록 한다.

農林水産業 기타 地域資源活用型 産業의 振興에 의해 就業機會의 充實을 圖謀함과 동시에 生産基盤과 的 關聯을 考慮해서 道路, 排水施設 등 生産基盤의

整備를 推進한다. 農林業의 活動을 통해 森林과 農用地 등 國土에 대한 自然環境 保全機能의 維持增進을 圖謀하고 아울러 休養 레크리에이션場으로서 農山漁村의 풍요한 自然環境의 活用을 進陟시킨다.

山村, 過疎地域, 落島 등에 있어서는 中心都市와의 交通, 通信體系 整備, 基礎의 生活基盤의 充實, 地域特性을 살린 産業의 振興과 都市住民과의 交通足進에 의한 地域의 活性化, 機能維持가 困難한 聚落의 再編成 등을 進行시켜야 한다.

該 報告書에서도 林業과 農畜産業 등의 複合經營 推進과 生活環境의 整備를 具體的으로 提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檢討된 報告와 答申의 提言內容을 보면 이들에게 共通되고 있는 事實로 다음 事項을 指摘할 수 있다. 森林의 健全한 育成管理가 木材供給과 森林의 公益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必要 不可缺하다는 基本的인 思考 아래, 森林의 育成管理 擔當主體인 山村住民들의 定住를 위해 農畜産業 등 地域資源을 活用한 就業機會의 確保와 生活環境의 整備가 重要하다고 하는 主張이다.

### 5. 地域林業 活性化 事例

지금 林業과 山村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는 林業地域 住民의 定着을 試圖해서 이들 住民에 의해 森林의 適正管理가 履行되고 林業振興의 結實을 擧場하는 일, 즉 地域林業의 活性化이다. 이같은 地域林業 活性化 對策은 이미 先進地域에 實施되고 그 成果를 거양하고 있는 事例가 많다.

森林組合이 主軸이 되어 고사리, 두릅, 와사비, 버섯류 등 副産物의 採取收集 및 販賣, 闊葉樹材를 利用한 各種 民藝木工品의 製造販賣, 林業과 農業의 調

和를 이룬 混收林 經營, 未利用地域의 林産資源을 有効하게 利用한 畜産經營 등이 進陟되고 있는 地域도 볼 수 있다. 이들 事例는 주로 地域林業의 各種 資源을 有効하게 利用한 活性化 對策이다.

그러나 이들 以外에도 톱밥, 廢材를 活用해서 施設 施設園藝의 燃料로 活用하거나 小規模 水力發電機를 導入해서 캠프場의 照明, 農業用의 熱源으로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都市住民의 뉴스에 副應해서 森林內에 캠프場, 散策路 등을 整備하고 레크리에이션 場所로 提供하거나 山村의 各種 特産物販賣, 宿泊施設에 의해서 山村住民의 所得向上을 시도하고 있는 地域도 나타나고 있다.

山村의 生活環境整備에 있어서도 未備된 上·下水道, 聚落道路의 設置, 村民의 保健休養, 레크리에이션場의 設置 등 地域實情과 住民要請에 따라 改善의 努力이 具體化되고 있는 地域이 各處에 出現되고 있다.

### 6. 結 言

地域林業의 活性化가 오늘날 日本林業의 큰 테마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活性化의 決定方法이라고 하는 技法은 아직 存在지 않는다. 地方에 따르기에 대한 處方과 手法은 千差萬別이기 때문이다.

日本에서는 地方時代\*의 到來란 말이 擧論되고 있다. 地域林業의 活性化와 같은 課題야 말로 地方時代의 最大 숙제이다. 情報化時代에 접어들어 全國各地的의 실정이나 專門分野의 폭넓은 知識과 知慧를 손쉽게 入手 可能하게 된 오늘날, 이들의 活用과 스스로의 創意, 努力에 의해서 地域林業의 發展은 企劃해 나갈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 地方時代란 産業의 振興, 住民의 福祉向上에 있어서 地域住民의 創意와 努力을 살리는 일.